

이덕일의 '역사의 창'



역사교과서의 고려·조선국경

역사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이다. 역사왜곡이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왜곡하는 것이다.

다. 이를 보는 학생들은 고려는 참 볼 품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다. '역사교과서'는 조선의 세종이 김 중서와 최윤덕을 보내 사군육진을 개척하면서 비로소 국경이 압록강-두만강까지 확장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려군이 북쪽의 압록강으로 갔다는 것이다. 1차 사료인 '명사(明史)'는 요동도지휘사사 산하의 '철령위(鐵嶺衛)'의 위치를 현재의 요녕성 심양(瀋陽) 남부 봉집보(奉集堡)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의 시공간은 이미 흘러버린 과거이기에 '타입머신'을 타지 않는 한 과거로 돌아가 그 시대를 볼 수 없다. 그러나 역사학에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의 단편들이 존재한다. 그 시대 사람들이 남긴 사료이다.

고려-조선의 북방강역에 대해 1차 사료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1차 사료로는 우리측의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 등이 있고 중국측에서는 원나라의 정사인 '원사(元史)'와 명나라의 정사인 '명사(明史)' 등이 있다.

최근 필자 등은 '은 국민을 위한 역사교과서'를 출간해 광복 이후 80여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일제 식민사학의 전면적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

의료칼럼

구강건강 관리 교육의 중요성



박유미 조선대치과병원 진료지원팀장

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방문, 충치 위험도 등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구강건강 관리 교육 예방서비스를 받는 포괄적인 아동 구강건강 관리제도이다.

현재 광주시와 일부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는 '방문 구강 건강관리'는 치과위생사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직접 집으로 찾아가 전문차 잇솔질 교육, 구강위생 관리법과 구강 근 기능 향상 일체조, 불과 입술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마사지를 통해 입을 벌어지게 하는 '정민속구강내외마시지법'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구강 건강 관리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인간은 보통 신생아 때 잇몸 닦기를 하고, 유치가 나오는 생후 6개월부터 잇솔질을 시작한다. 이후 인간 인격 형성의 가장 결정적인 발달단계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주도성이 길러지는 시기인 '3세-6세'부터 영구치로 교환 시기를 지나 청소년, 성인이 되어 중년기, 노년기까지 평생에 걸쳐 구강관리를 하면서 보내게 된다.

특히 틀니 때문에 껌 씹기가 힘든시편 딱딱 시계 소리를 크게 (1일 3회 15회 정도)내는 연습을 통해 혀 운동과 혀 근력을 키워보는 방법도 있다.

특히 틀니 때문에 껌 씹기가 힘든시편 딱딱 시계 소리를 크게 (1일 3회 15회 정도)내는 연습을 통해 혀 운동과 혀 근력을 키워보는 방법도 있다.

100세 시대에는 자신의 치아를 가지고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유아가 때부터 구강건강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후 14일-71개월 사이에 월령별로 총 12회(4차례의 구강검진 포함)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그만큼 구강 건강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구강의 노쇠(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 아닌 비정상적인 노화 과정을 의미)로 구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음식을 삼키는 장애, 씹는 장애, 그로 인한 영양의 불균형, 세균 감염 등 구강 질환이 발생한다.

이렇게 전 생애에 걸쳐 치아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강건강 관리 교육을 통해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고

골목골목마다 책 이야기가 펼쳐지길



이정이 광주 동구 인문도시정책과장

같이 읽는 것의 가치, 이른바 함께 독서 운동의 시작을 알린 것이다. 이런 독서동아리가 동구 관내 책방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관 누리집에서 책을 신청하고 동네 책방에서 수령해 감상평을 남기면 된다. 다만 정해진 예산이 있어 대상자는 3300여 명이지만 '동네 서점 바로 대출'이라는 도서관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하다.

오랜 구도심인 동구의 골목골목을 둘러보다 보면 책을 읽으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참 많다. 젊은이들의 핫한 장소인 동명동 한가운데 노랗게 자리하고 있는 '동명책방', 전국 유일의 단관극장인 광주극장 옆 골목의 '소년의 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너편 아치형의 서가가 돋보인 '책과 생활', 전남여고 뒷골목 '손탁앤 아이허' 등 고유하고 독특한 특색을 간직한 책방들이 몇 년 새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렇듯 주민들의 생활 속 인문 정신이 확산될 수 있었던 건 동구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인문도시정책과를 신설하고,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은 올해까지 6년째 꾸준히 '인문도시' 구현에 앞장서고 있기에 가능했다고 조심스럽게 자부해본다.

인터넷과 SNS 채널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에도 '책'은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바깥세상을 연결해주는 창구이자,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을 것이다. 더 이상 종이책에 의존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양한 통로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지금이라고 다를까.

필자 역시 소설 읽기를 좋아해 동명책방에서 한 달에 2번 정도 퇴근 후 예닐곱 명의 주민들과 함께 취향에 맞는 책을 읽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곤 한다.

그중에서도 종이책 독서율은 32.3%.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7명은 1년에 단 1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인문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구민들이 1년에 단 1권의 책이라도 제대로 읽기를 바라는 취지로 '책 읽는 동구' 사업에 뛰어들었고, 각종 결실을 맺고 있다.

책은 함께 읽으며 생각을 나누고, 그 생각에서 비롯된 소중한 가치를 켜켜이 쌓아가다 보면 '인문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은 이뤄질 것이다.

社說

쇠퇴하는 전통시장, 공실률 막을 대책 시급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버티었던 광주지역 전통시장들이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2년여 지속돼온 고금리와 고물가, 소비 불황에 전통시장들의 공실률이 속절없이 떨어지는 등 체감 경기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한다.

어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와 5개 구청들이 전통시장들의 쇠퇴를 두 손 놓고 있기만 한 것은 아니다. 매년 시와 구청은 전통시장에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 시설 현대화와 개보수 등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4년 6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6월 광주시 전통시장 체감 경기지수는 36.7로 전월 대비 5.1p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를 반영하듯 공실률도 최악이다.

시장은 스토리가 있어야 활성화되고 영속된다. 서울 동대문시장이나 튀르키예 그랜드바자르 등 유명 전통시장을 벤치마킹해 우리 시장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해야 한다.

차량돌진 참사... 보행자 보호대책 강화해야

최근 심야에 발생한 서울 시청역 주행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야근을 하기 위해 저녁을 먹은 후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찰나의 순간 사고를 당한 희생자들은 대부분 30-50대 평범한 직장인들이었다.

구 광천동 광천사거리에서 20대가 모는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오던 SUV와 정면 충돌한 뒤 인도를 덮쳤다. 이때 인도에 있던 10대 3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한 명은 한쪽 다리를 절단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광주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1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 시청앞 사거리에서 SUV 차량이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후 인도를 덮쳤다.

이와 같은 차량의 인도 돌진사고는 대부분 자동차 급발진과 운전자의 음주운전,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행자들 역시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 자체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無等鼓

무엇보다 지자체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내 교통섬과 횡단보도 인근 인도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사한 교통사고에 취약한 장소는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물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세익스피어의 희극 '베니스 상인'은 중세도시 베니스를 무대로 상인인 안토니오와 고리대금업자인 유대인 샤일록의 이야기를 다룬다. 안토니오는 샤일록에게 금 3000두카트의 거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자신의 심장 가까이 살 1파운드를 빼어주기로 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그들은 법정에서 만났다.

상업중심지 광주

도시에서 경제, 그 중에서도 상업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다양한 상을 정밀하게 그려내 호평을 받았다. 베니스, 즉 베네치아는 도시국가로, 10세기 경 영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무엇과 상거래, 금융업으로 부를 축적하고 강력한 군대로 주변을 침략해 더 큰 부를 쌓아 올린 베네치아의 전성기는 1797년 5월 나폴레옹의 점령과 함께 끝이 났지만 그 화려한 기운은 지금도 여전하다. 베네치아를 비롯해 피렌체, 제노바, 피사, 아말피 등의 이탈리아 도시도 비슷한 방법으로 성장하며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 이후 지중해에서 북해, 발트해, 대서양으로 상업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현재 서양의 유명한 도시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김수현 | 편집인 최재호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漢洙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보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